



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2.8만호 주택공급 첫걸음, 허 장 2차관,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

- 『도심 주택공급 확대·신속화 방안』 발표(1.29.) 이후 첫 국유재산 개발 대상지 확정
- 도심 핵심입지에 공공주택 등 918호 공급, ‘27년 착공 목표로 신속 추진
- 청년·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및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국민체감 성과 본격 창출

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(수),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희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, 신속한 이행을 당부하였다.

< 서울 강서구 군부지 개발 현장방문 개요 >

- ▶ (일시·장소) '26.4.8.(수) 10:30 ~ 11:00,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36-3번지 일원
- ▶ (참석자) 재정경제부 제2차관, 국방부, LH 관계자 등

이번 방문은 지난 1.29일 『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』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(2.8만호)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,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강서 군부지 개발은 공공주택 516호, 군관사 402호 등 총 918호를 서울 도심 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다.

이번 사업은 1.29.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1호 사업이다.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,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,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의결(4.7.)하였다.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. 앞으로도 ①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②사업계획 승인('26.12월, 국유재산정책심의회) ③'27년 착공('30년 준공)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본 사업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, 9호선 공항시장역 및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의 우수한 교통 여건과 마곡지구 생활인프라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높은 입주 수요가 예상되어 서울 서남권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허 차관은 “이번 사업은 1.29.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주택공급 사례로서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고 강조하며, “향후 국방부 및 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하여 청년,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또한 “앞으로 1.29일에 발표한 다른 후보지에도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, 소관부처와 상시 협력하는 한편, 도심 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재정경제부	국고실 국유재산정책관 국유재산개발과	책임자	과 장 송인혜 (044-215-524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성희 (balbali000@korea.kr)



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- (위치)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일원(67,487㎡)
- (사업시행자) 국방부(LH 위탁방식)
- (추진일정) '26.12.(위탁개발사업승인), '27.10.(주택사업승인),
'27.12.(주택착공)

구 분	사업내용	규 모
주택	군관사	402호
	공공주택	516호
	계	918호
주택 외 시설	부대시설, 근린상가 등 포함	

□ 위치도 및 예시도

